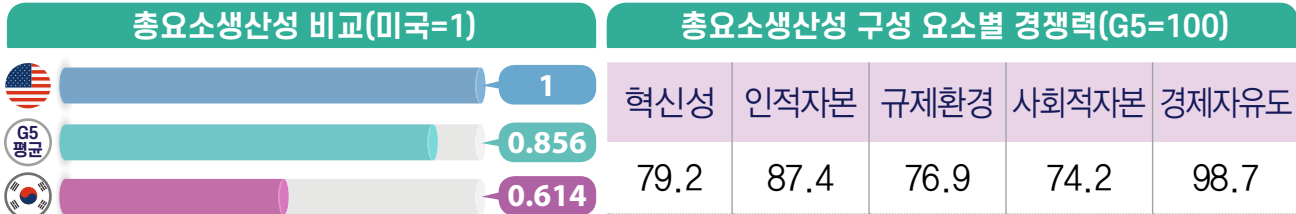




SUMMARY

01 한국 총요소생산성은 G5에 비해 열위(미국의 61.4% 수준에 불과)



02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의 핵심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3%p 개선시 잠재성장률 0.50~0.61%p 상승

03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규제혁신, 사회적자본 강화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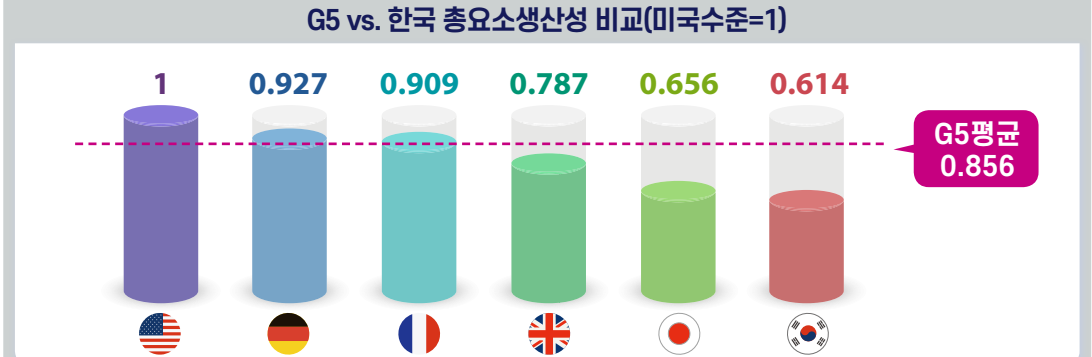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노동·자본량 등 직접 투입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총요소생산성 비교(G5 vs. 한국)

한국 총요소생산성, G5 대비 크게 미흡

❖ 한국 총요소생산성 G5 국가 중 최저, 미국의 61.4% 수준에 불과



*자료: Penn World Table 10.01('23.1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경제적 효과

총요소생산성 증대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 잠재성장률 높아져 경제 펀더멘털 개선
❖ 총요소생산성은 향후 50년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OECD, '15년)

한국 총요소생산성 개선시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기관명 (추정시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연간)		잠재성장률 ³⁾	
	중립 시나리오 ^{주1)}	개선 시나리오 ^{주2)}	중립 시나리오	개선 시나리오
KDI('22년)	1.0%('23년)	1.3%(+0.3%p)	0.5%('50년)	1.0%(+0.5%p)
금융연구원('21년)	0.9%('20년)	1.2%(+0.3%p)	0.6%('45년)	1.21%(+0.61%p)

* 주 1) KDI는 '23~'50년 1.0% 증가율 유지, 금융원은 '20년(+0.9%) 이후 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을 가정
2) KDI는 '23~'50년 '개선된' 증가율(1.3%) 유지, 금융원은 '29년 개선치(1.2%) 달성 후 '45년까지 동일수준 유지
3) KDI는 '50년 잠재성장률, 금융원은 '45년 잠재성장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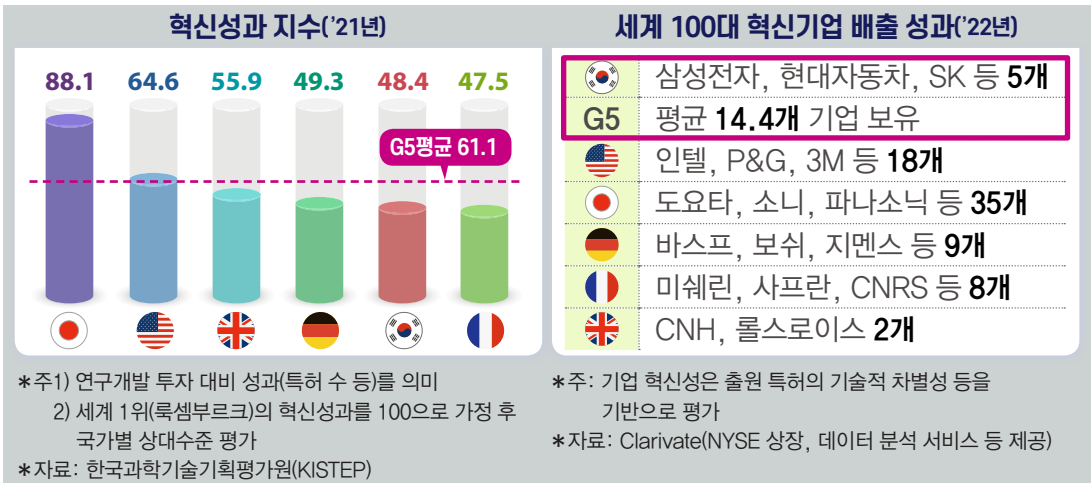
총요소생산성 주요 구성 지표 및 기여 경로

선택지표	총요소생산성 기여 경로 ^{주)}
① 혁신성	♣ 기술력 강화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제품경쟁력 향상
② 인적자본	♣ 노동생산성 등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증대
③ 규제환경	♣ 민간경제 활력 제고, 기업간 자율경쟁 통한 생산효율성 증가
④ 사회적자본	♣ 사회적 연대 강화로 기술·정보의 확산 속도 증가
⑤ 경제자유도	♣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퇴출로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 주: 지표별 총요소생산성 기여 경로는 OECD 생산성 증대 문헌조사 보고서(Identifying the Main Drivers of Productivity Growth, '22.11월) 내용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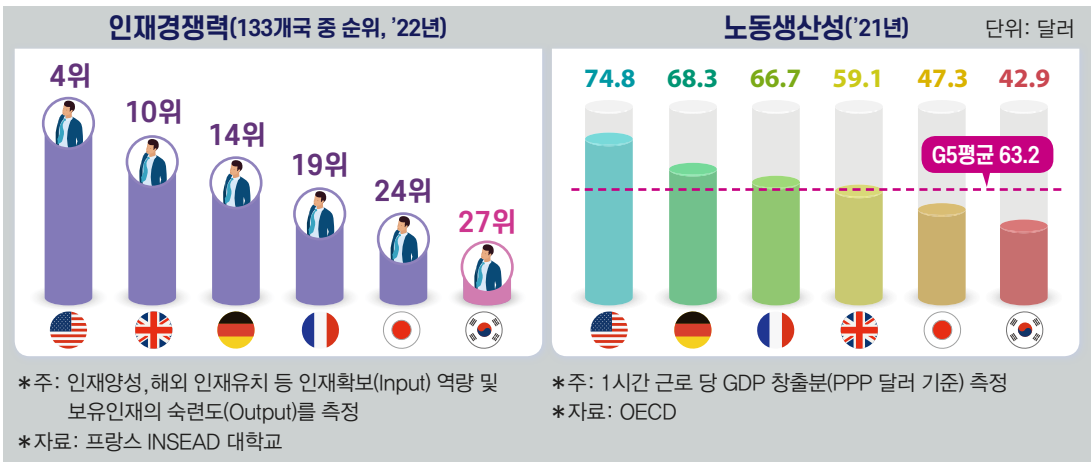
혁신성과·혁신기업
보유 수 G5보다
열위

1 혁신성 혁신성과 지수, G5 61.1 vs. 한국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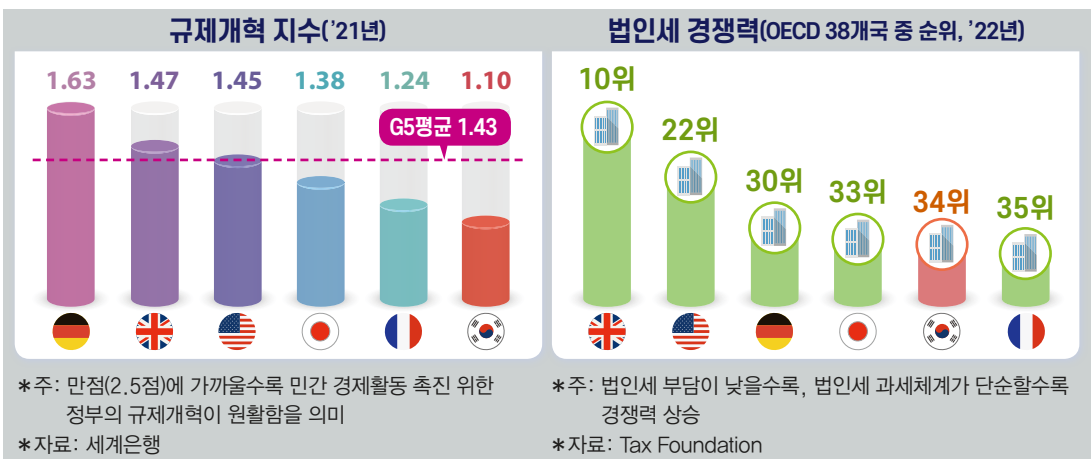
인재경쟁력 및
노동생산성도
뒤처져

2 인적자본 한국 인재경쟁력 세계 27위, G5 대비 가장 저조



G5 대비 규제
강도 높고 법인세
경쟁력 저조

3 규제환경 규제개혁 수준, G5 1.43 vs. 한국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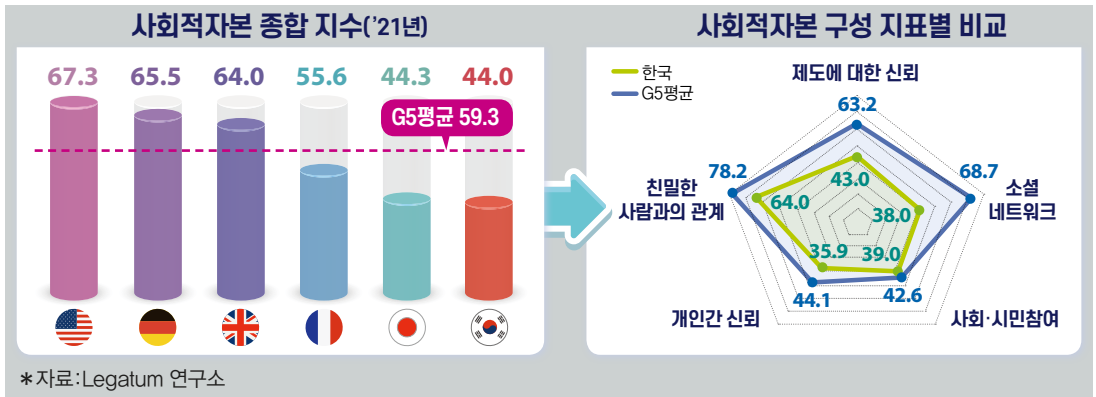


사회적자본,
개별 구성항목 ·
종합지표 모두
G5 대비 미흡

4 사회적자본* G5 59.3 vs. 한국 44.0

*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유무형 자원을 의미하며, ① 제도에 대한 신뢰, ② 소셜 네트워크, ③ 사회·시민 참여, ④ 개인간 신뢰, ⑤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로 구성(Legatum 硏)

❖ 사회적자본은 정책 투명성 제고로 인한 정부성과 증대, 사회 구성원간 지식 전파 (Knowledge Spillover) 등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기여



프랑스 제외시
G5 대비
경제자유도 열위

5 경제자유도* G5 76.1 vs. 한국 75.1

* 각국 제도·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측정(프레이저 연구소)

최근 5년('18~'22년) G5 vs. 한국 경제자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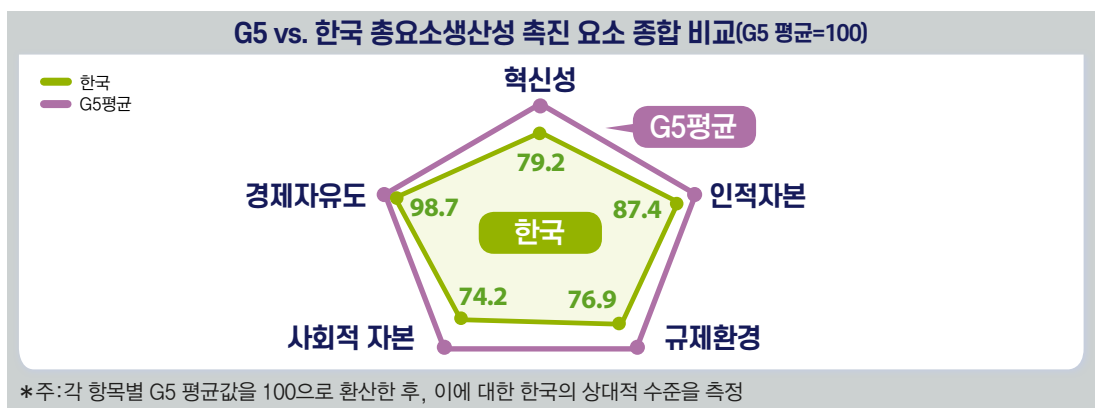
	한국	G5 평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프레이저 ^{주2)}	76.4	79.4	82.4	79.4	78.9	81.2	75.2
헤리티지	73.7	72.8	75.2	72.3	74.0	77.5	65.1
종합점수 ^{주1)}	75.1	76.1	78.8	75.9	76.5	79.4	70.2

* 주 1) 종합점수는 프레이저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2개 기관의 평균 경제자유도를 의미
 2)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도는 10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
 * 자료: 프레이저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총요소생산성
구성 요소 5개
모두 G5보다 미흡

❖ **종합** 한국, 총요소생산성 구성 요소 경쟁력 G5 대비 열위

- 경제자유도는 G5와 비슷한 수준(G5의 98.7%)이나,
- 사회적자본(G5의 74.2%)·규제환경(76.9%) 크게 부진



쟁점과 체크포인트

- ✓ **총요소생산성은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 타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 * “한국 생산성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 <’22년, IMF>
- ✓ **규제환경 개선과 사회적자본 강화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 필요**
 - * “한국 생산성 증대는 정부개입 완화 등 규제개혁 통해 달성 가능” <’22년, IMF>
 - * “사회적자본은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에 기여” <’20년, 캠브리지대>

■ 내용문의: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02-3771-0320), 윤병완 연구원(0446) byoonaa@fki.or.kr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Productivity and Product Markets in Korea

한국 상품시장과 생산성의 관계

Andrew Swiston, Stella Tam,
2022. 10월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2/10/28/Productivity-and-Product-Markets-in-Korea-Evidence-from-Advanced-Economies-525056>

SUMMARY

한국 선진국 대비 총요소생산성 부진, 특히 서비스업종 생산성 격차 상당

❖업종 전체 총요소생산성 선진국 중위값 대비 약 67%, 서비스업은 60% 수준

한국의 저조한 총요소생산성은 과도한 상품시장규제*에 기인

*상품시장규제(PMR):OECD가 각국 규제 강도 측정을 위해 개발했으며 '시장진입 규제'와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을 종합하여 평가

❖한국은 상품시장규제 수준이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강함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영비용 상승 등 생산 비효율성 초래 → 생산성에 타격*

*한국 규제강도 OECD 평균 수준 개선시 총요소생산성 연간 0.8% 증가



China's GDP will not surpass that of the U.S.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기 힘든 이유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2022. 12월

SUMMARY

중국 GDP는 첨단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미국 추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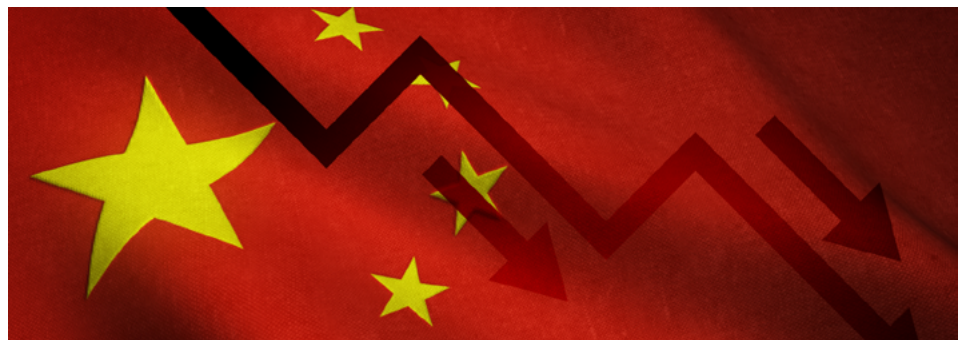
❖당초('21년) 미·중 GDP가 '33년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2년 현재, 미·중 경제 디커플링으로 인한 기술발전 제한 등으로 '35년 (최종 전망시점)까지 미·중 GDP 역전현상 없을 것으로 전망 수정

시진핑 4연임('32년까지 장기집권) 가정시 향후 중국경제 타격 더욱 극심*

*시진핑 4연임 할 경우, '25 ~ '35년에 걸쳐 중국경제 18조 달러 손실

❖시진핑 장기집권시 양안 갈등 고조, IT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성 둔화



https://www.jcer.or.jp/jcer_download_log.php?f=eyJwb3N0X2lkjo5OTUxNSwiZmlsZV9wb3N0X2lkjo1MjUifQ==&post_id=99515&file_post_id=99525